

합평군 내년 '나비엑스포' 개최 포기

예산난... 사업비 167억 중 17억 확보 불과

합평군이 불투명한 예산확보를 이유로 내년 '합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병호 합평군수는 9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외적 악조건을 무릅쓰고 엑스포를 강행해 군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군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려한 외양보다는 알차고 내실있는 실사구시 행정으로 군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3 합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며 "엑스포 예산을 절감해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예산 확대, 복지 지원 등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합평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예산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군은 지난 2010년 행사규모와 비용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고 세수마저 안 된다고 생각한 뒤 불투명해짐에 따라 고심을 해왔다.

내년 엑스포 총 사업비는 국비 33억 원·도비 37억 2000만 원·군비 96억 8000만 원 등 167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군이 확보한 예산은 국비 13억 원과 군비 4억 원 등 17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0.2%에 불과하다.

특히 국은 국비 7억 원 가량은 추가 확보할 수 있으나 나머지 국·도비 50억 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비 97억 원마저도 현재 재정으로는 한

들다는 입장이다. 또 전남도가 F1대회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3 순천 정음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합평나비엑스포까지 지원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군정 시책의 일관성과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엑스포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8년 개최한 엑스포가 큰 폭의 적자를 본 것이 알려지자 군민들 사이에 엑스포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감사원은 '2008 합평 세계 나비·곤

충 엑스포'가 사업비(549억 원)에 비해 137억 2000만 원의 수익에 그쳐 411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본 점과 관광객 유치 등이 예상에 크게 밀린 점 등을 지적했다.

합평군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랜 논의 끝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대신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3 합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는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합평 엑스포공원 등 109만 9㎡의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장성 수상스포츠 이번지 자리매김

18~20일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 장성호서 500여명 참가 열띤 경쟁

제54회 전국 조정 선수권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장성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55개팀 남녀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무타페어, 에이트 등 30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전국조정선수권대회는 지난 2월 열린 대한조정협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그동안 군의 성공적인 전국대회 개최 경험과 경기장 인프라, 유치 열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체육대회와 2009년~2011년 대통령기 전국 조정선수권대회 등 5년 연속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를 개최해 명실상부한 수상 스포츠의 일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조정경기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레인부설 등 조정경기 시설물을 점검하고, 외부 관객들이 조정경기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내 곳곳에 안내관 및 환영 현수막을 설치해 준비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수과 임원, 학부모 등 2000여명이 장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수단 환영 및 농·특산품 홍보 등으로 장성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종호기자 yongho@



'적토우' 몸값 2032만원... 최고가 경신

도내 유일 '유기한우' 인증 장흥 한창본 율송농장대표.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기한우' 인증을 받은 장흥군 용산면 한창본(47) 율송농장 대표. (사진) 보통 일반소는 38개월 사육해 도축하는데 반해 적토우는 가장 육질이 좋을때인 48개월간 사육해 우시장에 내놓는다. 소 한 마리에 1837만원으로 국내 최고가를 기록했던 적토우. 적토우는 일반 소고기보다 2~3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특히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에서 명절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일명 '명품' 한우로 정평이 나왔다. 한 대표가 키운 1016kg 적토우가 지난 6일 장흥축협에서 도축돼 2032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공식적 228건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지역에서도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유형도 기성세대의 상식을 뛰어넘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눈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일까? 학교의 명예나 폭력학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책 마련 없이 조용히 넘겨버리는 행위는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더 부추기고, 진정한 의미의 선도가 아

'쉬쉬'가 학교폭력 더 부른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사건 발생 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쉬쉬'하기에 급급하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도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상담보다는 학교에서 소란피우고 항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은폐시키려는 태도는 피해 학생들을 우울증에 빠뜨리고 자살까지 불러오고 있다. 과연 가해자 학생들을 보호한다고 '쉬쉬'하는 것이 이들의 앞

나. 특히 공직자 자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해 부모들의 입장 때문에 은폐시키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학교 측에 막무가내로 항의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문제화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서야 할 때이다. sslee@kwangju.co.kr

이상선
(서부취재본부기자)

여성친화일촌기업 5곳 선정 목포대교 주정차 단속 자살·추락사 방지위해

전남여성플라자 업체당 300만원 지원. 전남여성플라자 새일지원본부는 최근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와 여성·가족친화 경영 등에 적극적인 여성친화일촌기업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업체는 해남 귀빈식품(주)·화순(주)라벨라·담양(주)고려 전통식품·고흥 에덴식품 영농조합법인·영암 희망재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1개 업체당 환경개선자금 300만원이 지원된다. 새일지원본부는 여성친화일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5개 기업을 최종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와 바닥재 교체·보수 공사를 비롯해 여성 전용 화장실 추가신축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새일본부 관계자는 "이번 여성친화 일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도내 많은 기업들이 가족과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여성 고용확대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목포시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목포경찰서와 공동으로 지난 29일 개통한 목포대교 구간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다리에서 투신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어 다리 중앙에서 차량을 주·정차해 놓고 경관을 보는 사람이 늘면서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데 따른 것이다. 목포대교 시·종점부에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을 금지 표지판 확대 설치와 함께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는 목포대교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량 내 주·정차 후 차량하차 및 사진촬영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서부취재본부=고구석기자 yousou@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 ~ 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수요금(사용전량 4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월 납입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 가장 거리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H.P 011-659-7001